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는 질적 도약 준비' <4> 1차산업

## 문제 매년 반복...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가격 떨어지면 예산 투입... 때우기식 정책 지속  
감귤 이어 과잉생산 처리난 월동채소 해법 난망  
어민들은 中불법조업·유통비용 과다로 '이중고'

제주 1차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앞선데 뒷진격으로 태풍과 가을장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종사자들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1차 산업 예산 비율이 10%대가 무너졌고, 고품질,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어느 때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미래는?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감귤 가격 하락에 따라 60억 원을 투입, 크기가 가장 큰 '2L' 규격 2만t을 수매해 가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5kg 기준 가격이 같은 달 7월 6000원, 9월 6000원, 10월 58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9%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외출하물량(약 2500t)이 2018년 및 평년에 비해 10~20% 감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수매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 의견이 엇따라 나오고 있다. '때우기식'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귤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벌과 성숙이식 등으로 대표되는 '원지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까지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목표로, 750ha에 이르는 과수원에 '원지정비 및 품종갱신 전문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생산으로 곱마리를 앓고 있는 마늘과 당근, 무, 배추 등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소득화 사업 ▶월동채소 주산지 작목 다변화 기술보급 등이 추진된다.

▶어업도 마찬가지-제주의 어민들

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대체 어장이 부족, 원거리 조업에 떠밀리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유자망 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



설국(雪國)으로 변신한 한라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됐다. 8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눈 쌓인 발판에서 눈놀이를 하며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 올해 공공임대주택 1312세대 공급

도, 주거지원사업도 확대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분야 등 9개 사업에 405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99억원을 들어

면 지난해 3월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에 참가한 어민들이 "떨어도 좋으니 대체어장을 확보해달라"고 읊소할 정도였다.

힘들게 물고기를 잡아도 유통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수취율(어민이 가져가는 몫)은 노랑진 수산시장을 기준으로 갈치는 40.8%, 방어 52.5%, 광어 41%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두 유통비용으로 소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산물 유통비용 저감 및 거래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자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송은범기자

## '청정·공존 스마트 국제자유도시' 본격화

도, 국토종합계획 후속 조치  
제주 이익 극대화에도 총력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비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관련,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도 단위 각종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비전과 그에 따른 4개 기본 목표, 9개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제주지역 주요 발전방향으로는 ▶생활기반향 주거와 서비스 확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 ▶자연재난에 대응한 회복체계 구축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제주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등이다. 또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 자원 이용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 조성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서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과 함께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제주발전을 위한 추진동력과 명확한 근거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 단위 각종 계획 수립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와 제주지역의 발전방향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알림**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및 한라 문학인의 밤

2020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과 한라 문학인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이날 '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초청해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문학 특강도 엮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6일(목) 오후 4시 아스타 호텔(제주시 서사로 129) 3층 연회장

**행사**

- 1부(16:00): 특별 강연
- 2부(17:10): 시상식
- 3부(17:50): 한라 문학인의 밤

**특별 강연** · 강연자: 김용택(시인)

▶시집 '심진강, 맑은 날, 꽃 산다는 길, 그 여자에 집, 울고 들어 온 너에게' 등  
▶동시집 '공, 너는 죽었다. 내 동 내 밥' 등  
▶산문집 '심진강 전집' 8권, '김용택의 어머니',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울드려 밟고 싶었다' 등  
▶수상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7년 소설시문학상, 2012년 윤동주 문학 대상

**당선작**

- 시: 이도훈 [순환선]
- 시조: 이선호 [유한나무, 탐라에 서다]
- 소설: 이은향 [버스커, 버스커]

※ 행사 문의: 경영기획과 064) 750-2523

# 연동 365일의원

진료 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6년연속 지정

##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연동365빌딩

우편집중국 신제주 | 롯데마트 | E마트 | 으름상호저축은행 대림APT | 오일장신문 | KCTV | 연북로 | 신제주 로터리 | 부림랜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